

새소망교회
2 월 소그룹모임 묵상 교재

- 제 1 과 -

‘하나님은 항상 내 주변에서 일하신다!’

오타와 새소망 교회

www.okmhc.ca

1 과. 하나님은 항상 내 주변에서 일하신다!

◆ 들어가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밝히시고 또한 이미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자기 백성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더욱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며 영적인 삶,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교회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와 역사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깨닫고 경험함으로써, 보다 더 영적인 삶,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참고로 본 교재는 '요단 출판사'에서 출간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내용을 요약하고 재편집하여 만든 새소망교회의 소그룹 모임을 위한 목상교재입니다.

◆ 1. 당신은 한 인격체를 경험해야 합니다!

* 히브리서 5 장 12 절~ 6 장 3 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큰 지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당신과 더욱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깊이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과 동행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오늘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걸음을 땀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처럼 확신 있게 믿는다면 (창세기 12 장 1-5 절), 당신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2. 만약 당신의 일생에 대해 예수님의 뜻을 묻는다면, 다음 두 가지 질문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A.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요? 언제, 어떻게,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하길 원하시나요?
그리고 제게 그 일의 결과를 알려 주세요.

B. 주님! 그저 한 번에 하나씩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바람직한 자세는 B 입니다! 오래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 모든 청사진을 한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인생을 한걸음 한걸음씩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 청사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길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순종의 관계성’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아마도 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성경을 당신의 길잡이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한걸음씩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 3. 성령님은 당신의 개인 선생님이 되십니다!

* 요한복음 14 장 26 절, 요한일서 2 장 27 절 말씀을 읽어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 지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길 기도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참고: 헨리 블랙가비 목사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찾을 때, 항상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라갈 것을 고집합니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당신이 배우게 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도 당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고, 더욱 더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대해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늘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힘쓰는 성도가 되세요. (에베소서 3 장 20 절)

◆ 4.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행하셨나요?

* 요한복음 5 장 17 절, 19-20 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 (1). 누가 항상 일하고 계십니까?
- (2). 아들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만큼 됩니까?
- (3). 아버지는 왜? 아들에게 무엇을? 보여 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 일을 다 보고 그의 뜻에 동참하셨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도 (열왕기상 18 장 16-39 절) 그랬습니다. 그는 850:1 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자신의 생각대로 싸움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랐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2 장 26 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부터 알아보세요. 그곳이 바로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이고, 그 일이 바로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 본론 5.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인생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생각했듯이 성령님과 성경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가르치시며 도와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 헨리 블랙가비 목사

“덮어놓고 무슨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덮어놓고 아무 일이나 하지 말고, 거기 좀 잠시 서 있어!’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와 나와 먼저 사귀어 보자!’

‘먼저 너를 나에게 맞추어 보렴!’

‘그래서 나로 너를 사랑하게 하고, 너를 통해 일하는 나의 손길을 한번 확인해 보렴!’

* 아모스 3 장 7 절을 읽어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면, 항상 개인이나 그의 사람들에게 그가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일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꼭 최우선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역사를 구체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면서 더욱 더 영적인 삶,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 오늘의 작은 결론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제일 우선해야 할 일은 바로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힘쓰는 일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소그룹 나눔을 위한 3 가지 숙제 (준비 사항)

1. 이번 과를 읽으면서 든 생각은 무엇인가요?
2.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3. 이번 한 주를 보내는 동안 나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은 것이 있다면, 언제, 무엇인가요?

◆ 2 월 새소망교회 암송구절: 요한복음 15 장 5 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